

기업, 급전으로 빗 깊는다… 1~3년 단기물 72% ‘역대최대’

장기물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지난달 회사채 70%가 빗돌려막기
은행·운용사, 2~3년물 중심 발행

국내 10대그룹 회사채 발행 잔액
201.5조 → 194.7조, 삼성만 늘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1500억원 모집을 목표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48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만기별로는 2년물 800억원 모집에 2030억원, 3년물 700억원 모집에 2770억원이 들어왔다. 하나에프앤아이도 지난달 1.5년~3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1500억원)의 5배가량인 6870억원의 수요를 확인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3년물이 특히 흥행했는데, 절대금리 대비 발행물량이 적은 영향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1~3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 이른바 ‘급전’을 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회사채보다 기업어음(CP)에 의존하고 있다. 조달 자금도 투자보다 빗 갚는 데 주로 쓰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



7월 크레딧 발행 시장에서 1년 초과~3년 이하 비중이 71.8%로 나타났다.

/따능AI

(정점 통과) 우려 및 물가에 대한 걱정(긴축 확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신한투자증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7월 크레딧 발행 시장에서 1년 초과~3년 이하 비중이 71.8%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다.

1년 이하 크레딧 비중은 21.5%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장기물도 찾기 힘들었다. 3년 초과~10

년 미만 비중은 5.7%, 10년 이상 비중은 1.0%였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7월 한 달간 발행한 회사채 중 70% 이상은 빗 돌려막기였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물 발행 감소는 높은 차환비중과, 장기물 약세, 2~3년물 수요 쏠림 등의 영향이 크다”면서 “중장기물 발행 공백으로 2~3년 구간에 발행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3년물 수요는 견고하다. 장의

크레딧 시장 큰손(비중 52.7%)인 은행과 운용사가 2.2~2.5년 사이 듀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수급 주체로 떠오른 반도체 기업도 2~3년물 중심 크레딧을 끌러담고 있다.

김 연구원은 ‘A’등급 이하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증권사발 공급 과잉은 유동성 대응이 취약한 하위등급의 신용 위험을 자극했지만, 현재는 단기 시장 정상화로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진 상태다”면서 “단기 시장 참여를 통한 하위등급 유동성 대응력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와 시장이 좋을 때 이야기다. 회사 성장성을 담보로 대중에게 발행하는 회사채나 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비해 단기차입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업황 침체에 경영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차입을 늘려야 하는 기업들은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아지자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부지만) 기관들도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아둬게 보기 때문에 만기를 짧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 중견기업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면 롤오버(만기연장)해야 하는데, 향후 금리 인상시 비용이 증가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채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해 10대 그룹 중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곳은 ‘삼성’뿐이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558억원에서 이날 194조7821억원으로 6조2737억원(3.1%)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5조5985억원(2.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의 회사채 발행 잔액만 23조1264억원으로 작년 말 19조2577억원보다 20.1%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안 찍는 것이 아니라 못 찍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채 조달비용이 은행 조달금리보다 훨씬 높은 데다, 최소 AA급이 아니면 주요 투자자들이 잘 담지 않아 발행 여건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발행을 의뢰하는 기업은 많지만 원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줄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삼성운용에 단일 레버리지 자산 59% 몰려

SK·삼성 단일종목레버리지 6.5조
잠정 운용보수 각각 18.5억, 11.8억
상대적 높은 연 0.27% 운용보수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의 수익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이 전체 평균 순자산의 약 59%를 운용한 가운데 운용보수는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데다 보수율도 주요 경쟁 상품보다 높았던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7월28일까지 63일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에서 발생한 잠정 운용보수는 총 36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상품의 평균 순자산은 총 11조762억원이었다.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가 ETF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투자자 자산에서 차감하는 비용이다. 상품 거래량이 아니라 순자산 규모와 보수율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거래가 줄더라도 순자산이 유지되면 계속 부과된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지 단일종목레버리지’의 평균 순자산은 각각 3조9831억원과 2조5412억원으로 총 6조5243억원에 달했다. 전체 16개 상품 평균 순자산의 58.9%에 해당한다.

두 상품의 잠정 운용보수는 각각 18억4900만원과 11억8000만원으로 총 30억2900만원이었다. 전체 운용보수에서 차지한 비중은 82.6%로 평균 순자산 비중보다 23.7%포인트 높았다.

이는 삼성자산운용 상품에 자금이 집중된 동시에 연 0.27%의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보수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의 보수율은 연 0.07%인 하나·한화·KB·미래에셋자산운용의 같은 유형 상품보다 약 4배 높다.

평균 순자산 규모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지 단일종목레버리지’ 평균 순자산은 총 3조

7900억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잠정 운용보수는 총 4억8500만원으로 전체의 13.2%였다. 두 상품의 운용보수율은 각각 연 0.07%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두 상품에서 2600만원의 운용보수를 기록했다. 이어 KB자산운용 21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 1300만원, 하나자산운용 700만원 순이었다.

인버스 2배 상품을 포함한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의 운용보수는 각각 4900만원과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자산운용의 삼성전자 인버스 2배 ETF는 연 0.47%로 16개 상품 가운데 보수율이 가장 높았지만 평균 순자산이 559억원에 그쳐 운용보수는 4600만원을 기록했다. 단순히 보수율뿐 아니라 투자자 자금이 어느 상품에 몰렸는지가 운용사의 수익을 가른 셈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신규 상장과 광고도 중단하고 투자자 교육과 괴리율 관리 등을 강화했다.

/허정운 기자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KIS Chat in Seoul’에서 글로벌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인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도전정신, 글로벌 성장에 큰 힘 될 것”

김성한 한투증권 사장, 해외대생 만나
여의도 본사에서 채용설명회 진행

한국투자증권이 방학을 맞아 귀국한 해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해외 대학교 재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KIS Chat in Seoul’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증권업과 한국투자증권의 사업 및 직무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현지 한인 학생회를 통해 행사 소식을 접한 해외대 재학생 약 16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사업과 기업금융(IB), 디지털 등 주요 직무의 역할과 실제

업무를 살펴보는 직무 설명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현직자를 직접 만나 업무와 채용 과정 등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참가자들에게 회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투자증권은 선진 금융시장에서 경쟁하며 글로벌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확보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 넘버원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여정에 함께 할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며 “낮선 해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온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해외대 전형회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이끌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국민 5명 중 1명은 ‘토스증권’ 쓴다”

누적 가입자 1000만명 돌파

토스증권 계좌를 보유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3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한 지 5년4개월 만이다. 출범 초기 2030세대에 집중됐던 고객층도 5060세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지난 7월 계좌를 보유한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6

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2021년 3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한 이후 5년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해 6월 누적 가입자 700만명을 기록한 뒤 13개월 만에 가입자가 300만명 더 늘었다. 지난 7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50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증가세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출범 초기 약 70%였던 2030세대 비

중은 현재 약 50%로 낮아졌으며, 40대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50대와 60대 이상 신규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3배와 4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신규 가입자가 약 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토스증권은 모바일과 PC 기반의 간편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AI 어닝콜’, ‘AI 시그널’, ‘실시간 이슈’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허정운 기자

신한자산운용, TDF 시리즈 수탁고 2조 돌파

올해만 6000억 이상 자금 유입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심의 장기 자산배분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은퇴시점에 맞춘 자산배분 전략과 시장 대응력을 앞세워 꾸준한 자금 유입을 이끌며 대표 연금

상품의 운용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했다.

신한자산운용은 대표 연금 상품인 TDF 시리즈의 전체 수탁고가 2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만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2017년 TDF 시장에 ‘신한마음편한적격TDF’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9년 만에 거둔 성과다.

/신하은 기자 godhe@